

“화순에 친환경 목재산업 유치...호남 목재산업 경쟁력 높여야”

하니움문화센터 콘퍼런스서 한국목조건축협동조합 주장 목조건축 선도·기반 확충

전남 지역에 친환경 목조건축 산업단지를 조성해 목조건축을 선도하고 목재 생산의 기반 확충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목조건축협동조합은 지난 2일 화순 하니움 문화체육센터 만연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목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콘퍼런스에서 산림청이 공모하고 있는 목재산업단지 조성 사업을 화순군이 유치해야 한다고 이 같이 주장했다.

한국목조건축협동조합과 광주일보사가 함께 주최·주관한 이날 콘퍼런스는 목조건축 전문가와 사업 종사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식과 목재 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 보고, 주제발표, 토론·질

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최규용 한국목조건축협동조합 이사장은 목재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 보고에서 취약한 호남지역의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을 지역 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표로 지역별로 특화된 목재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는 조합 설립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지난 9월 남원산림조합과 지역산 목재 우선공급을 위한 MOU 체결, 10월 화순군 목재산업단지 공모 신청을 위한 용역 발주 등 성과를 공유했다.

최 이사장은 이어 ▲1차년도(2022년) 부지 조성 사무실동 및 공장동 건축·공무관련 직원 채용 및 교육 ▲2차년도(2023년) 연구 용역 발주 및 수행·생산관련 직원 채용 및 교육 ▲3차년도(2024년) 최종설비 도입 완료·목조건축 입찰 참여 및 수주활동 등 향후 사업 계획도 밝혔다.

주제발표에서는 배기철 아이그래프연구소 소장이 ‘목의 건축:국산재를 이용한 목조건축 사례,

이형우 전남대 교수가 ‘국산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건조가공의 필요성 및 산업화’, 강석구 충남대 교수가 ‘목재산업단지의 필요성과 사례발표’를 주제로 목조건축의 사례와 목재산업단지의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목재산업의 미래 이용가치’를 발표한 김상민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산림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목재생산과 목재산업을 목표로 목재시장 확장에 따르는 국가적 역할이 필요한 시기”라며 “목재산업의 신 성장동력 발굴과 선택적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목조건축, 가구 등 전방산업 기능을 활성화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 후 참석자 자유토론 형식으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했고 이날 행사를 마쳤다.

최규용 한국목조건축협동조합 이사장은 “국산 목재를 이용한 친환경 목조건축은 건설분야에서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는 미래 건축의 중심이다”며 “산림청에서 공모하는 목재산업단지 조성 공모



지난 2일 화순군 하니움체육센터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 목재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콘퍼런스에서 최규용 한국목조건축협동조합 이사장이 목재산업단지 조성 추진 현황보고를 하고 있다.

김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사업을 화순군에 유치해 취약한 호남지역 목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산성 향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담양군, 문체부 ‘예비문화도시’ 최종 선정

26개 문화사업 조성 계획 수립 내년 선정 법정문화도시 대비

담양군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제4차 예비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됐다. <사진> 이번 선정으로 담양군은 2022년 12월까지 1년간 각종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내년 12월 법정문화도시 선정에 대비할 계획이다.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되는 문화도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해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받는다.

특히 예비문화도시 선정을 거쳐 법정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되면 5년간 2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문화사업 관련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서면과 현장실사, 문화도시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49개 지자체 중 담양군을 비롯한 11개의 지자체를 예비문화도시로 선정했다.

담양군은 문화도시실천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역



내 다양한 계층·세대와 소통하며 ‘너랑 나랑 여여가는 연관문화도시, 담양’을 비전으로 ▲담양이 있는 날, 문화도시 거버넌스 구축 ▲바퀴달린 문화도시 담양 ▲문화운동 ‘대뿌리 네트워크’ 등 26개 사업을 골자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했다.

군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연대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구축·운영하는 자립형 문화활동을 전 지

역으로 확장함으로써 문화 다양성을 통한 법정문화도시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과 이주민, 예술가, 외국인 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는 생활 속 문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노영찬 기자 nyc@kwangju.co.kr

‘강진쌀귀리’ 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강진군이 강진쌀귀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특허청에 등록했다.

지리적 표시제는 특정 지역 우수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지역명을 표시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지리적 표시 등록으로 강진쌀귀리 역사성은 물론 쌀귀리 생산에 적합한 온도와 일교차, 강수량, 풍부한 일조시간 등 기후 여건의 우수성이 입증됐다고 군은 설명했다.

강진쌀귀리는 단백질과 칼슘, 필수 아미노산 함

량이 풍부하며 베타글루칸 성분이 다량 함유돼 혈당과 혈액 속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을 준다.

무엇보다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와 변비에 좋고 심혈관 질병 예방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 251농가, 695ha에서 쌀귀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국내 전체 귀리 생산 면적(1544ha)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강진군은 지난해부터 쌀귀리를 이용한 웰빙 건



강식품 개발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쌀귀리 국수를 시작으로 고추장, 전식, 분말, 떡 등 다양한 가공식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승욱강진군수는 “쌀귀리 생육의 최적지로 알려진 강진군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재배 사업으로 강진 쌀귀리를 특화품목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진=남철희 기자 chou@kwangju.co.kr



함평군이 지역 독거노인들에게 제공한 전자앨범.

‘사진 보니 좋네’...함평군, 독거노인에 전자앨범 제공

전자기기에 가족사진 담아 선물

함평군이 지역 저소득 독거노인들에게 전자앨범으로 잊지 못할 추억여행을 선물했다.

함평군은 노인 맞춤형돌봄 서비스 대상 어르신 60명을 선정해 가족, 친지의 사진을 담은 전자앨범 지원 사업을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과 교류가 어려워진 어르신들을 위해 가족사진을 담은 전자앨범을 지원함으로써 우울감 등을 겪는 어르신들의 심리방역 지원을 위해 추진했다.

전자앨범은 설치와 사용이 편리해 스마트폰이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도 언제든지 자녀 등 그리운 가족의 사진과 영상을 볼 수 있다.

함평군은 전자기기와 함께 사진 영상물을 담아 제공했으며, 노인들이 사망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면 기기를 회수한다.

이상익함평군수는 “이번 사업이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의 우울감 해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사업지원 대상자를 확대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의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한수영 기자 hsy@kwangju.co.kr

‘나주로컬푸드 소비자 서포터즈’ 회원 17명 신규 위촉

나주시가 로컬푸드의 공익적 가치 확산에 앞장설 ‘나주로컬푸드 소비자 서포터즈’ 회원 17명을 신규 위촉했다.

나주시는 최근 빛가람동 스페이스코워에서 (재)나주시농업진흥재단 주최로 ‘제2기 로컬푸드 소비자 서포터즈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로컬푸드 서포터즈는 소비자교류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로컬푸드 소비자 리더 그룹이다.

이번 위촉식을 통해 서포터즈 회원은 기존 13명에서 30명으로 늘었다.

/나주=김민수 기자 kms@kwangju.co.kr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